

(붙임)

# 작은 전시 대표유물



- 유물명 : 인서록서(人瑞錄序)
- 제 작 : 1794년 (정조 18)
- 소장처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 설 명
  - 정조가 「어정인서록(御定人瑞錄)」을 편찬하면서 작성한 서문의 초고로 정조의 친필이다.



- 유물명 : <인서연운시 仁瑞聯韻詩> 중 '정조와 호위신하들의 근체시 모음'
- 제 작 : 1794년 (정조 18)
- 소장처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 설 명
  - 정조가 신하들과 함께 「인서록」 간행을 기념하여 지은 <인서연운시(仁瑞聯韻詩)> 중 정조의 어제시(御製詩)와 정조를 호위한 신하 24명이 쓴 근체시(近體詩, 구수, 자수 등에 엄격한 규칙을 가진 형태의 시)를 모아 두루마리로 만든 것으로 모두 친필초고이다.



□ 유물명 : 영조가 정조에게 내린 은인(銀印)

□ 제 작 : 1776년

□ 소장처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 설 명

- 1776년(영조 52) 왕세손 정조가 「승정원일기」에 실린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삭제해 줄 것을 청하는 상소의 내용에 크게 감동한 영조가 정조에게 <세손에게 내리는 글(諭世孫書)>과 함께 친히 내린 인장이다. 인면에 영조가 쓴 '효손 팔십삼서(孝孫 八十三書)'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 유물명 : 궁원의(宮園儀)

□ 제 작 : 1785년

□ 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설 명

- 정조 즉위 직후 경모궁(景慕宮)과 영우원(永祐園)으로 승격된 사도세자 사당과 묘소에서 치러지는 의식과 관련된 제기 등의 물건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의식 절차를 기록한 책이다. 1780년 신간본(新刊本)을 보완하여 1785년에 다시 간행한 책으로 특별히 남색 비단과 붉은색 실로 아름답게 꾸며 경모궁에 봉안한 것이다.